

두려움의 심판대에서 은혜의 식탁으로

본문: 창세기 43:16-34

유튜브: https://www.youtube.com/live/-jMybytf0CQ?si=Y_-njc2UiyyR0ahn(주소 클릭-> 열기 클릭)

[새벽 말씀 묵상]

우리는 종종 과거의 실수나 해결되지 않은 죄책감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오해하곤 합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의 형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들은 애굽 총리의 집으로 초대받는 영광을 누렸지만, 기뻐하기는커녕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무려 22년 전 동생을 팔아넘긴 죄책감과 지난번 자루에서 발견된 돈 때문에, 베풀어진 호의조차 자신들을 노예로 삼으려는 심판의 덫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죄책감은 이처럼 우리 내면에 '자기 처벌'이라는 감옥을 만들어, 작은 위기나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벌주시는구나”라며 스스로를 위축시키고 소극적인 인생으로 전락시킵니다.

그러나 잔뜩 겁을 먹고 들어간 그곳은 형벌의 심판대가 아니라, 원수를 형제로 품어내는 은혜의 잔칫집이었습니다. 요셉은 돈을 요구하지 않고 억류된 시므온을 풀어주었으며, 밭을 씻기고 풍성한 식탁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나아가 막내 베냐민에게 다섯 배의 음식을 주는 '은혜의 테스트'를 통해, 과거 시기심의 노예였던 형들이 이제는 온전히 함께 기뻐하는 화해와 성숙의 자리에 이르렀음을 확인합니다.

이 식탁은 바로 자격 없는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보여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배신 감에 빠져 도망친 베드로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갈릴리 해변에서 떡과 생선을 굽고 “와서 조반을 먹으라” 부르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며, 징계가 아니라 긍휼입니다. 오늘 하루, 사탄이 주는 죄책감과 율법적인 자기 공로의 짐을 십자가 앞에 모두 내려놓으십시오.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주님의 화해와 은혜의 식탁에 믿음으로 나아가, 두려움이 변하여 찬양이 되는 참된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관찰]

1. 요셉의 형들은 그의 집으로 초대되어 안내받을 때, 무엇 때문에 자신들을 노예로 삼으려 한다고 두려워했습니까? (창 43:18)
2. 청지기는 자루에 들어 있던 돈으로 인해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그 재물을 누가 넣어 주신 것이라고 안심시켰습니까? (창 43:23)

[삶의 적용]

1. 과거의 실수나 내면의 죄책감으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거나, 두려움 때문에 소극적이고 방어적으로 대하고 있는 내 삶의 영역은 무엇입니까?
2. 사탄의 정죄를 이겨내고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식탁'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 오늘 내가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할 율법적인 모습이나 스스로 대가를 치르려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오늘의 기도]

사탄이 주는 죄책감과 두려움의 소리에 속지 않고, 나를 위해 사랑으로 화해의 식탁을 베푸신 십자가의 은혜 안에 거하며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